

# 현안과 과제

| 산업단지 경쟁력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의 필요성

- 산업단지는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기본 시설이며, 생산 활동의 전지 기지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 산업단지 내 생산 985조원(총제조업 대비 62.7%), 수출 4,121억달러(총수출 대비 74.2%)
- 산업단지에 대한 국제 경쟁력 비교와 불만족 요인 분석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인식 분석 결과

<p>국내 산업 단지에 대한 만족도 낮고 경쟁력 저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4개 중 1개 기업(23.5%)은 이주를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의향은 입주시기가 길수록 낮아지다 20년 이상시 노후화로 다시 증가</li> <li>· 경공업과 기계 업종의 경우 이주 의사가 3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li> </ul> </li> <li>- 이주할 경우 10개 기업 중 4개 기업(42.4%)이 해외 산업단지를 선호하여, 이들 기업이 실제 해외로 이주한다면 국내 산업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국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중국(41.1%), 베트남(33.7%), 인도네시아(20.0%), 태국(5.3%) 순서임</li> </ul> </li> </ul>
<p>국내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부지비용 등 입주비용 경쟁력은 아시아 주요 5개국 중 최하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기업이 이주 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입주비용 경쟁력(41위)은 아시아 주요국 대비 최하위</li> <li>· 베트남의 입주비용 경쟁력이 가장 높고, 중국의 경우 두 번째 수준이지만 인도네시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됨</li> </ul> </li> <li>- 둘째, 근로자 임금 경쟁력도 아시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근로자 임금 경쟁력(43위)은 아시아 주요국 대비 최하위</li> <li>· 근로자 임금 경쟁력 역시 베트남(23위)이 가장 높고, 중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비해서도 다소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됨</li> </ul> </li> <li>- 셋째, 교육, 의료 등 산업단지 주변 삶의 여건에 대해 불만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점수는 평균 3.23점으로 나타남</li> <li>· 반면 주변 삶의 여건은 점수가 2.80점에 불과해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음</li> </ul> </li> <li>- 넷째, 산업단지 노후화로 기숙사나 주차 공간 등 편의시설에 대해 불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의시설은 2.81점으로 기반시설(3.69점), 물류인프라(3.50점) 대비 낮은 편</li> </ul> </li> </ul>

시 사 점

- ① 정부차원에서 국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물류인프라와 기반시설 개선
  - 산업단지 부지비용 절감과 같은 획기적 정책 지원
  - 주변 삶의 여건이나 단지 내 편의시설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 ② 기업차원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
- ③ 개성공단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도 대안

## 1. 산업단지에 대한 인식 조사의 필요성

- 산업단지는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시설이며, 생산 활동의 전진 기지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 국내 산업단지 수는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를 포함하여 2011년 말 현재 총 948개에 달함
  - 산업단지 내 기업체수는 63,748개로 전체 제조업 사업체 대비 19.5%를 차지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내 총고용은 171만 4천명으로 전체 제조업 고용의 50.1%를 차지
  - 또한 산업단지 내 생산액은 985조원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의 62.7%, 수출은 총수출 대비 74.2%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 생산, 수출 등에 핵심 기반 역할을 하는 시설임
  
- 따라서 산업단지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비교하고, 불만족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기업들이 산업단지 시설이나 주변 인프라, 정책 지원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국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국내 산업단지 현황(2011년 기준) >

구 분	단지수(개)	업체수(개)	고용(천명)	생산액(억원)	수출액(백만달러)
국 가	40	39,635	967	6,428,701	275,815
일 반	469	18,682	607	2,923,155	123,950
도시첨단	9	121	1	1,553	1.1
농 공	430	5,310	138	496,811	12,332
합 계	948	63,748	1,714	9,850,220	412,098
제조업 대비 비중	-	19.5%	50.1%	62.7%	74.2%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산업단지 업체수는 가동업체수 기준이며, 전국 제조업체수는 2010년 자료임

2) 수출은 2011년 총수출 기준임.

## 2.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인식 분석 결과

### ○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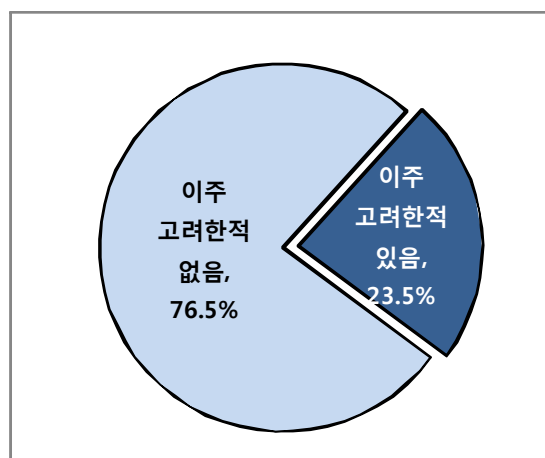
- 전국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살펴보았음
- 조사기간은 2012년 9월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주일간이었고,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은 지역별, 규모별, 업종별로 1,000개 기업을 추출하여 전화독려 후 팩스 조사 실시

#### < 조사 개요 >

구 분	내 용
조 사 대 상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
조 사 기 간	2012.9.24 ~ 10.12 (3주일 간)
조 사 방 법	팩스 조사 (응답기업 22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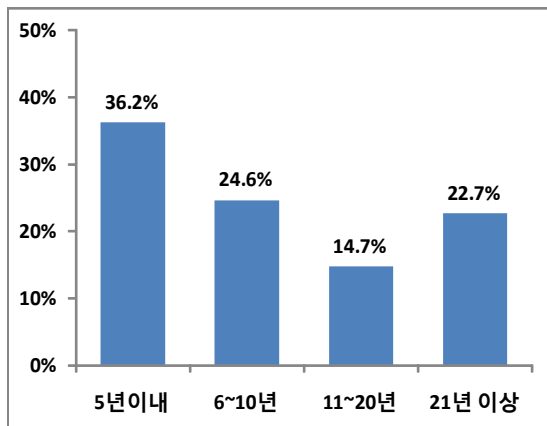
### ○ 국내 산업단지에 대한 만족도 낮고, 경쟁력도 저조한 실정

#### ① 4개 기업 중 1개 기업(23.5%)은 산업단지 이주를 고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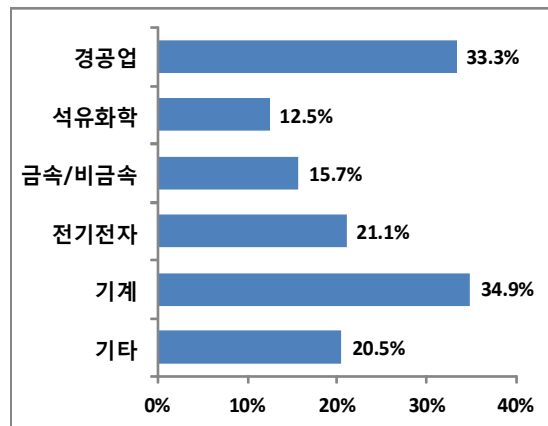


- (세부항목별 비교) 입주시기가 5년 이내 혹은 20년을 초과한 기업의 이주 의사가 높으며, 특히 경공업과 기계 업종이 이주 고려 비율이 높음
  - (입주시기) 입주 5년 이내 기업의 경우 이주 의사가 35.5%, 21년 이상된 기업들의 경우 22.7%인 반면, 입주 11~20년인 기업은 14.7%만 이주의사
  - (업종) 경공업과 기계 업종의 경우 이주 의사가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석유화학, 금속/비금속 업종의 경우 낮음

< 입주시기별 산업단지 이주 의사 >



< 업종별 산업단지 이주 의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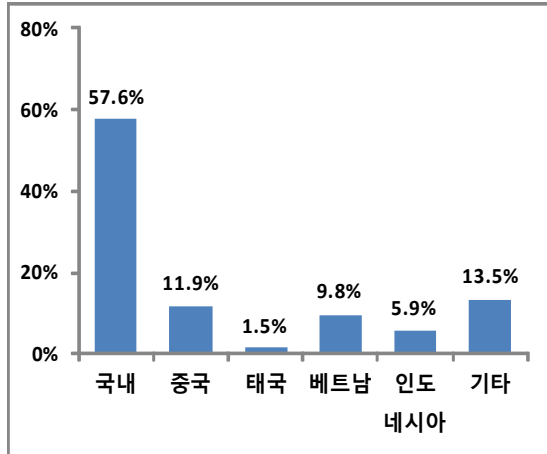


② 10개 기업 중 4개 기업(42.4%)이 해외 산업단지를 선호하여, 이들 기업이 실제 해외로 이주할 경우 국내 산업 공동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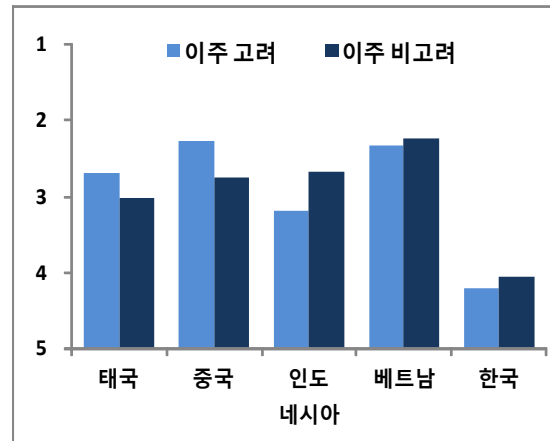
- (이주 선호 지역) 기업들은 향후 이주를 고려할 경우 국내의 다른 산업단지를 선호(57.6%)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국(11.9%), 베트남(9.8%), 인도네시아(5.9%), 태국(1.5%) 순서임
- 언어·문화적 차이, 인프라 부족, 부패 등의 문제로 해외로 이주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 입주비용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보다 국내 타 산업단지로의 이주 선호가 높은 편임

- 실제 해외 진출 시 겪게 되는 언어·문화적 차이, 기대보다 비싼 임금 수준, 열악한 인프라, 정부 및 기업의 부패, 정보 부족, 고급 인력 부족 등 다양한 애로사항으로 있다고 알려짐<sup>1)</sup>

< 이주 고려 지역 >



< 이주 의사별 입주비용 순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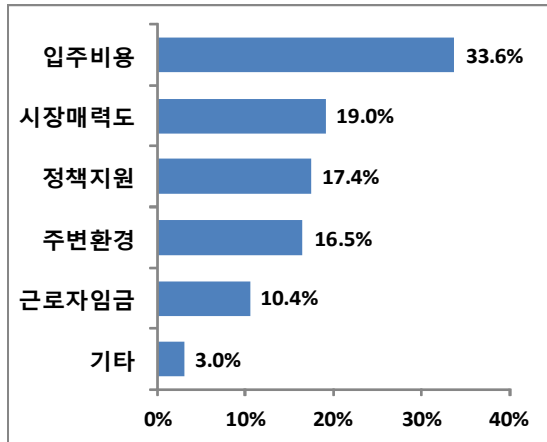
## ○ 국내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 원인

### ① 기업들이 산업단지 이주시 입주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단지의 입주비용 경쟁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 기업들이 산업단지 이주시 산업단지 자체에서 발생하는 입주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입주비용(33.6%)이며, 그 외에는 시장매력도(19.0%), 정책지원(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볼 경우에도 모든 업종에서 입주비용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적으로는 경공업과 석유화학은 정책지원, 금속/비금속과 기계는 시장매력도, 전기전자는 인프라 시설 등 주변 환경을 중요하게 평가

1) 중소기업연구원(2006년),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효율적 지원방안

< 향후 산업단지 이주시 고려 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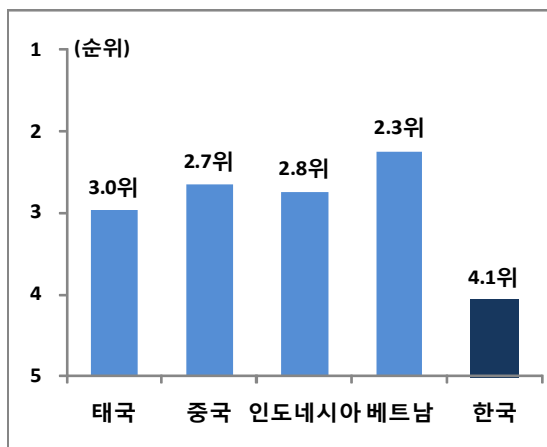
< 업종별 이주시 고려 요인 비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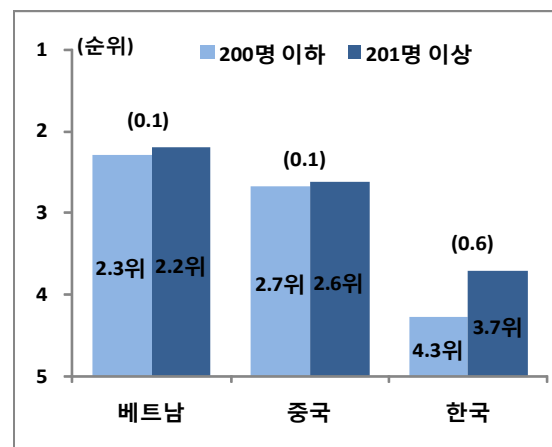
	경공업	석유 화학	금속/ 비금속	전기 전자	기계
입주 비용	34.8	28.1	37.8	35.5	31.4
시장 매력도	18.2	15.6	21.4	15.8	19.8
정책 지원	24.2	21.9	17.3	13.2	17.4
주변 환경	9.1	21.9	14.3	25.0	16.3
근로자 임금	13.6	3.1	8.2	7.9	11.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입주비용에 대한 경쟁력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순위가 매우 낮게 나타남
  - 입주비용에 대한 경쟁력은 베트남(2.3), 중국(2.7), 인도네시아(2.8), 태국(3.0) 순이며, 한국의 경우 최하위 수준임
  - 특히 국내 기업 중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국내 산업단지 입주비용의 상대적 순위가 더 낮은 것으로 평가
  - 종업원 규모가 200명 초과 기업의 경우 국내 산업단지의 입주비용 경쟁력 순위가 3.7위인 반면, 200명 이하 기업의 경우 4.3위로 평가

< 입주비용 경쟁력 순위 비교 >



< 기업 규모별 입주비용 경쟁력 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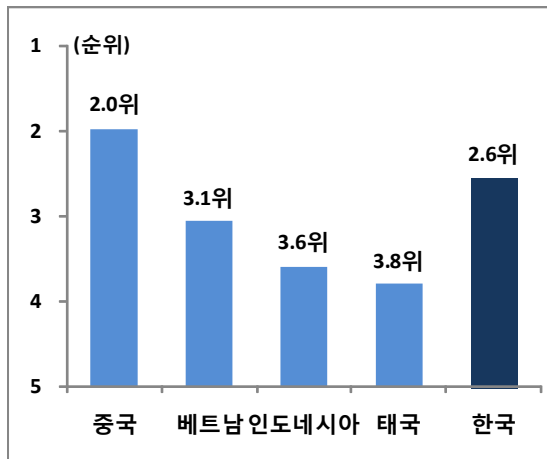


주: 괄호안은 격차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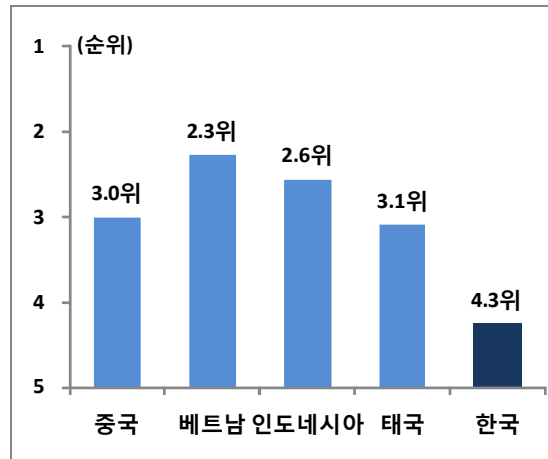
②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시 특히 국내 산업단지의 근로자 임금 경쟁력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

- 한국은 아시아 5개 주요국 중 산업단지의 전반적 경쟁력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평가
  - 산업단지의 전반적인 경쟁력 순위는 중국(2.0위), 한국(2.6위), 베트남(3.1위), 인도네시아(3.6위), 태국(3.8위)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한국의 근로자 임금 경쟁력 부문 순위는 4.3위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근로자 임금 순위는 인도네시아(2.5위), 베트남(2.3위)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음
  - 중국의 임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 임금 순위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 전반적 경쟁력 순위 비교 >



< 근로자 임금 경쟁력 순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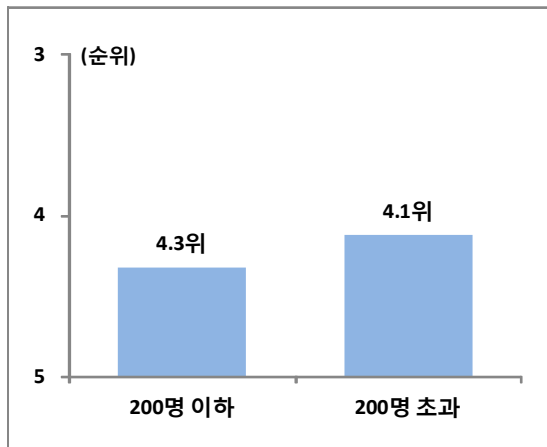


-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자 임금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 기업이 더 낮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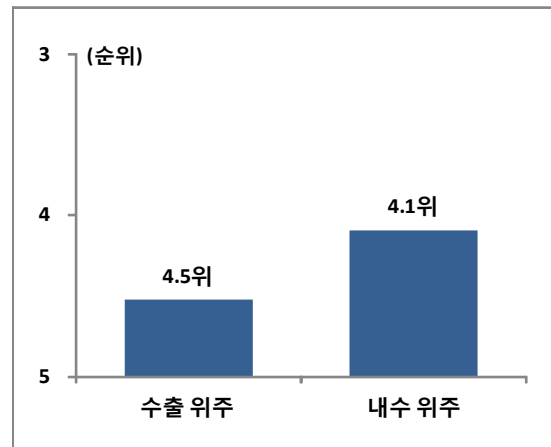


- 특히 종업원 규모가 200명 이하인 기업이 평가한 경쟁력 순위는 4.3위로 200명 초과 기업(4.1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
- 또한 내수 위주 기업(4.1위)보다 수출 위주 기업(4.5위)이 국내 산업단지의 근로자 임금 경쟁력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규모별 근로자 임금 경쟁력 순위>



<생산제품별 근로자 임금 경쟁력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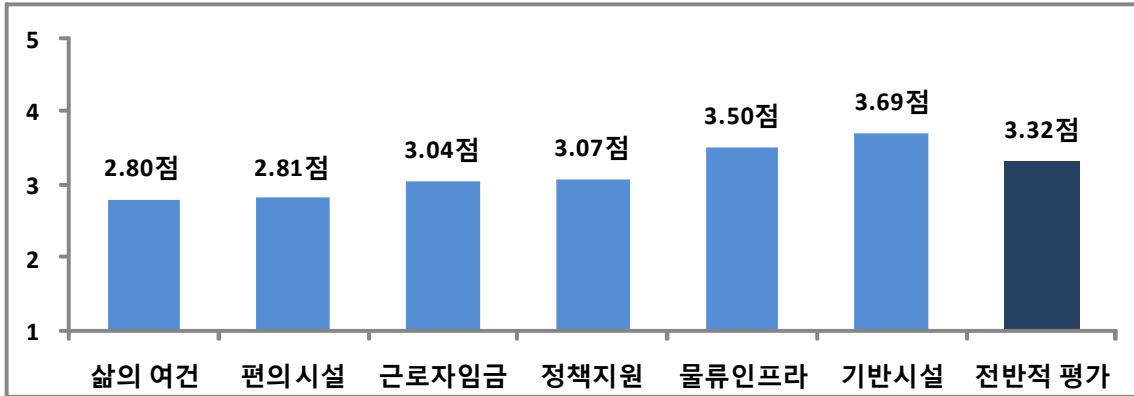


③ 국내 산업단지의 경우 교육, 의료 등 산업단지 주변 삶의 여건에 불만이 가장 높음

- (항목별 비교)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내 기업들은 산업단지 주변 삶의 여건에 대해 가장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냄
  -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인식하는 국내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는 평균 3.23점으로 나타남
  - 교육, 의료 등 주변 삶의 여건 항목의 경우 점수가 2.80점에 불과하여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히 낮음<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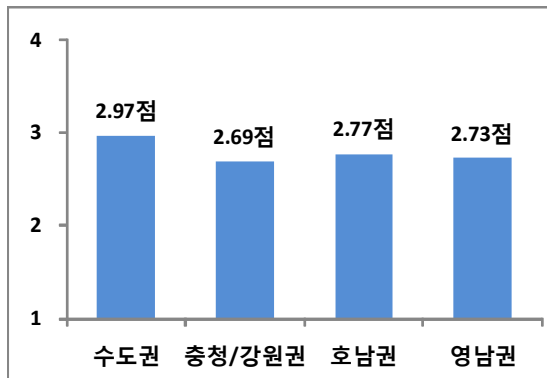
2) 입주비용 항목의 경우 기업들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내 타 산업단지와 비교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국제비교와 달리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항목별 비교(5점 척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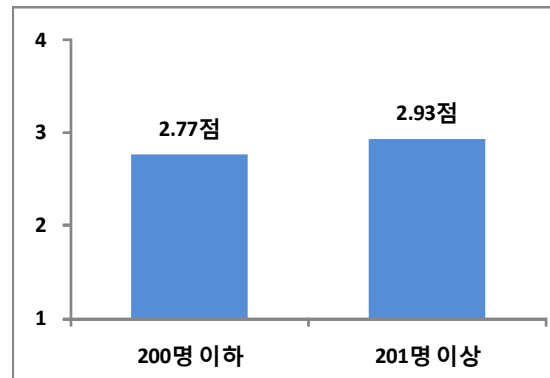


- (지역별/기업규모별 비교) 지역별로는 수도권(2.97점), 호남권(2.77점), 영남권(2.73점), 충청/강원권(2.69점) 순으로 나타남
  -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대체로 주변 여건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201명 이상 기업은 2.93점, 200명 이하 기업은 2.77점임

< 지역별 주변 여건 비교 >



< 기업규모별 주변 여건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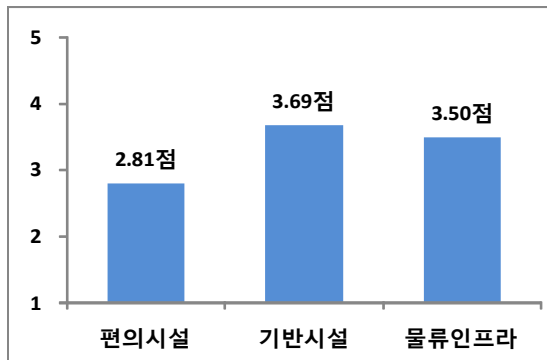


④ 산업단지 노후화로 기숙사나 주차 공간 등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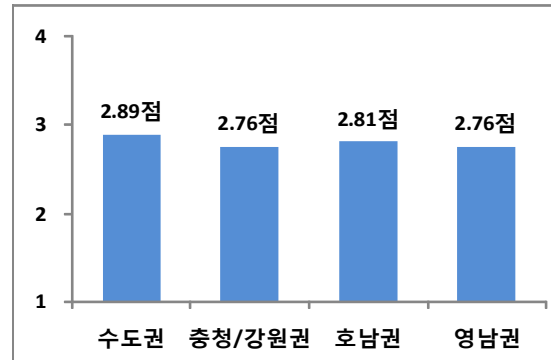
- (편의시설 항목) 단지 편의시설의 경우 주변 삶의 여건과 유사하게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에 속하는 편임

- 단지 편의시설의 경우 2.81점에 불과해 기반시설이나 물류인프라 항목 점수와 비교시 각각 0.88점, 0.69점이 낮은 등 점수에서 큰 차이
- (지역별 비교) 단지 편의시설에 대해 지역별로는 수도권(2.89점), 호남권(2.81점), 영남권(2.76점), 충청/강원권(2.76점) 순으로 나타남

< 편의시설 항목과 타항목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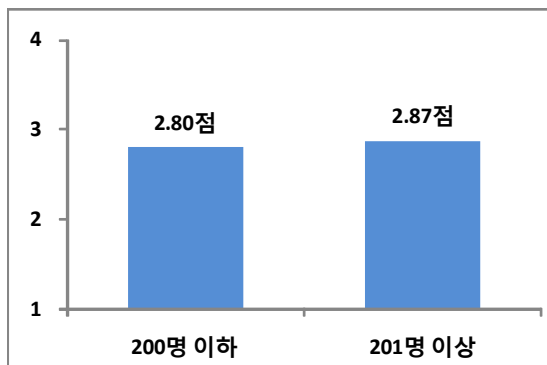


< 지역별 편의시설 점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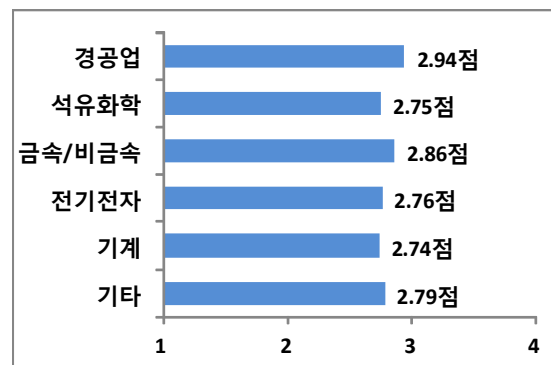


- (규모별/업종별 비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대체로 단지 내 편의시설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남
  - 201명 이상 기업은 2.87점, 200명 이하 기업은 2.80점
  - 업종별로는 경공업(2.94점), 금속/비금속(2.86점), 전기전자 업종(2.76점), 석유화학(2.75점), 기계(2.74점) 순서임

< 업체 규모별 편의시설 점수 비교 >



< 업종별 편의시설 점수 비교 >



### 3. 시사점

#### 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첫째, 노후화된 산업 단지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물류인프라와 산단 기반시설 개선 마련이 필요**

- 일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우 주변 물류인프라 및 단지기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기업들의 입주시기가 오래된 기업들의 경우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이주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자체적인 운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쟁력의 기반을 모색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둘째, 부지 비용 등 입주비용과 같은 경쟁력 열위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산업단지 부지비용 절감과 같은 획기적 정책 지원이 필요함**

- 부지비용 등 입주비용같이 중요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산업단지의 부지비용 절감 대책이 나와야 함
  - 예를 들어 산업단지 입주비용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입주비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입주비용이 높은 산업단지의 비용을 경감시키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함

**셋째, 주변 삶의 여건이나 단지 내 편의시설 같은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정책적 지원도 필요**

- 산업단지 주변 삶의 여건 개선을 통해 입주 기업들의 불만 요인을 해결하기 위


한 정책적 지원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함

- 기업들도 산업단지 내 기업협의체 등을 활성화하여 스스로 산업단지 주변 삶의 여건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함

**②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구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 기업 차원에서는 근로자 임금 경쟁력 저하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 생산성 향상 노력이 요구됨
  - 한국의 근로자 임금 경쟁력이 아시아 주요국 대비 최하위이므로, 이는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통해 극복되어야 함
  - 정부는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기업들의 노력을 이끌어내야 함

**③ 개성공단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도 대안으로 바람직함**

-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비용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임
  - 상대적으로 국내 산업단지의 입주비용과 근로자임금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비용경쟁력이 높은 개성공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장후석 연구위원 (chahus@hri.co.kr, 02-2072-6234)

조규림 연구원 (jogyurim@hri.co.kr, 02-2072-6240)